



2025 실적

투자자 유의사항

본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향후 전망, Backlog, Pipeline 등은 현재 사업환경과 당사의 경영전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미래의 사업환경 변화 및 전략 수정 등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되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현행화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는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투자 결과 등에 대해 여하한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2025 실적
 - Pipeline 확보
 - 사업별 Update
-

2025년 매출액 3,856억원(+16%), 영업이익 530억원(+41%), 세전이익 381억원(+39%)

- 태양광 솔라닉스 연간 180MW (4Q 100MW) PPA 체결,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개발용역, 연료전지 총주(40MW) 인도, BESS 제주(40MW) 개발용역 등 4분기 최대 성과 달성

(단위: 억원)	'24년	'25년	YoY
매출액	3,322	3,856	+534
태양광	122	422	+300
풍력	516	1,219	+703
연료전지	2,407	1,847	-560
ESS	277	368	+91
영업이익	376	530	+154
신재생e	425	590	+165
ESS	50	87	+37
미배분	-98	-147	-49
영업외손익	-101	-149	-48
세전이익	275	381	+106
순이익	224	307	+83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및 전력거래: 솔라닉스 2,3호(80MW), 5호(100 中 63MW) 401억원 ● 보유자산 (세종,순천 4MW) 등: 발전매출 등 21억원
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위풍백(75MW): '25년말 공정률 91%, 매출 830억원 ● 의성황학산(99MW): '25년말 공정률 71%, 매출 21억원 ('26년 Procurement) ● 신안우이 해상(390MW): '25년말 착공에 따라 개발용역 216억원 ● 제주가시리(30MW): 발전매출 119억원 / 울진풍력(53MW): O&M매출 24억원
연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 제도 內 사업 : 총주(40MW) 4Q Procurement 매출 1,719억원, 대소원(40MW, 1,719억원), 파주(31MW, 1,415억원) 공사 중 ● HPS 입찰 內 사업: 28MW(이천,파주1,2) 개발용역 매출 107억원
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저감용: 매출 311억원 (자체 203억원, ESCO 91억원, 제주 17억원) ● BESS 입찰: 제주 표선 (40MW/240MWh) 개발용역 55억원,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2월 中 우협 발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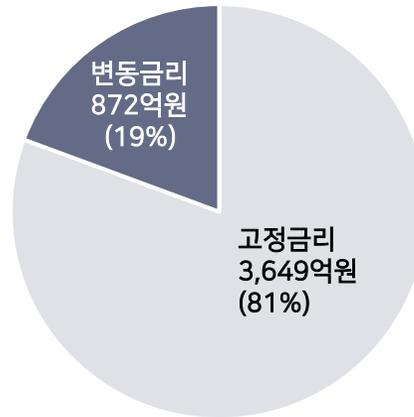
자산 1조 3,171억원, 부채 1조 440억원, 자본 2,730억원이며 부채비율 382% 수준

- 공사중인 대소원, 파주, 의성 PJT 비차입성 부채 증가 등의 사유이며 이를 제외한 (조정후)부채비율 237% 수준임,
'26년 해당 PJT 인도완료 등에 따라 부채비율 점차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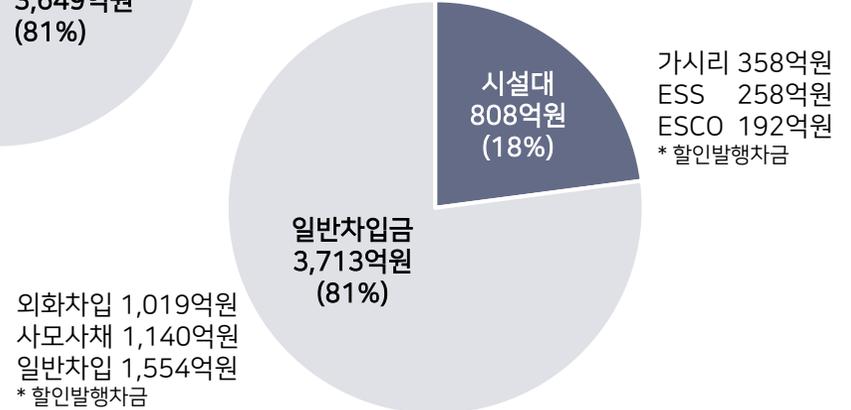
(단위: 억원)	'24년말	'25년말
자산	7,317	13,171
- Cash 등	796	1,192
- 재고자산	592	3,990
부채	4,897	10,440
- 선수금	639	4,946
- 차입금	2,842	4,508
자본	2,420	2,730
- 자본금	67	68
부채비율	202%	382%

대소원 1,613
파주 1,313
의성 1,055

차입금 현황



'25년말 기준
차입금 4,508억원 (순차입금 3,623억원)



다양한 재생e 포트폴리오와 개발/운영 역량 기반으로 '전력거래 사업자'로 진화 중

재생에너지 Portfolio



태양광 구조화 및 전력거래 선도자



국내 Top-Tier 풍력발전 사업자



고효율 연료전지 솔루션 보유



국내 No.1 ESS 운영 사업자

Build to Own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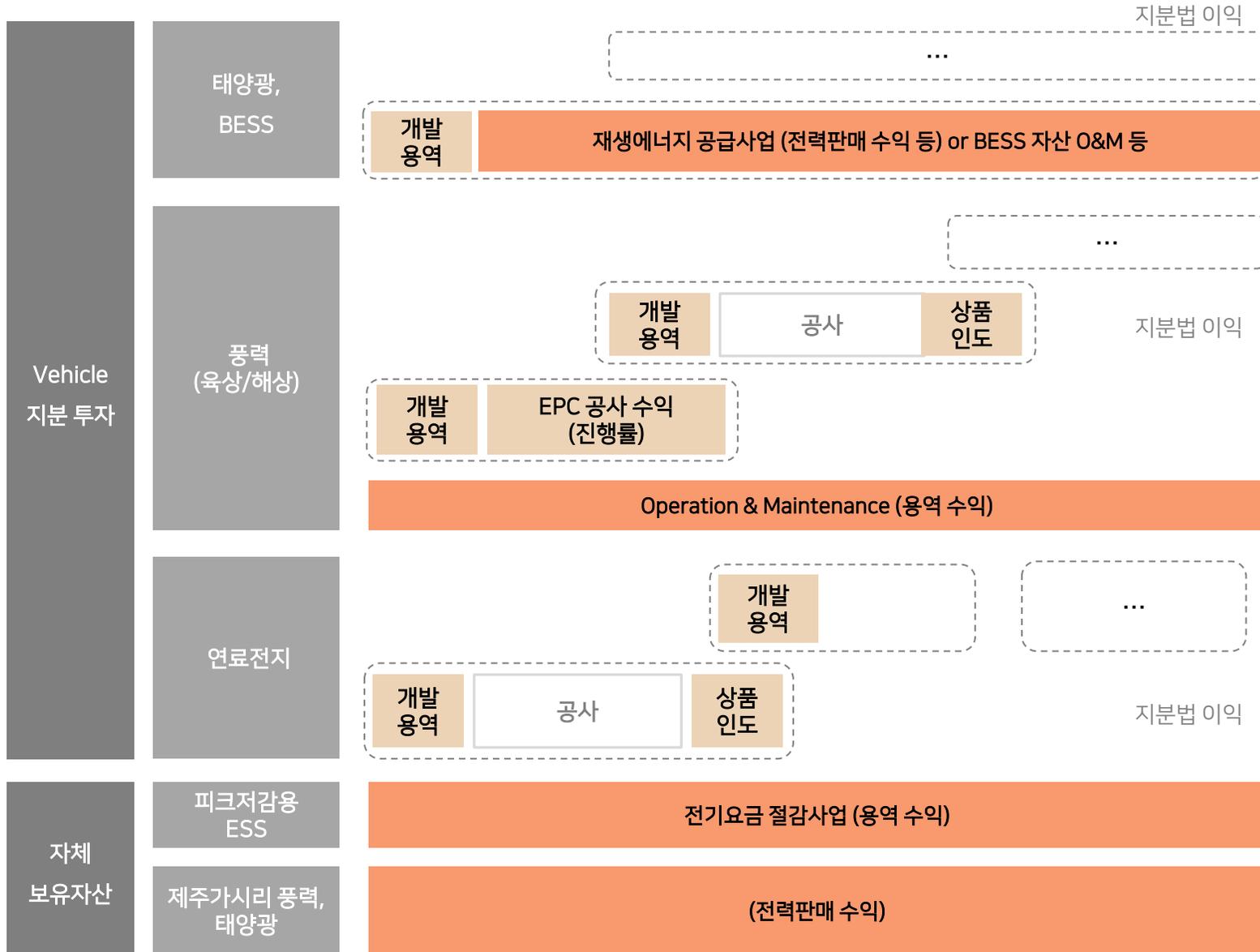
- 태양광/풍력/연료전지/ESS 분야의 개발,EPC,PF 등 역량 보유

운영

- 태양광 (솔라닉스 220MW)
- 육상풍력 (가시리,울진,군위 158MW)
- 연료전지 (6개 PJT 129MW)
- ESS (국내 795MWh, 미국 200MWh)

전력 거래

- 태양광 발전자원 Aggregation
- RE100 고객사와 PPA 계약
- 발전량 예측, 재생e 입찰제도 참여
- BESS(중앙계약시장) 사업 진출



Pipeline 3.0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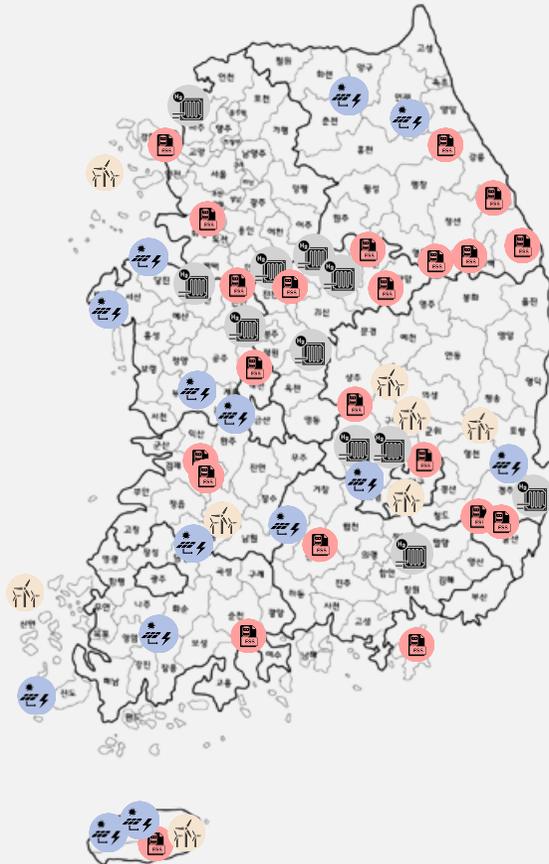
태양광(0.7GW)

솔라닉스 1~3,5호 ✓	PPA 체결	220MW
솔라닉스 추가	매입 중	400MW
4호(제주위미)	공사 중	18MW
진도 염해농지	개발 중	72MW



풍력(1.6GW)

육상 325MW	제주 가시리	상업운전 중	30MW
	울진 현종산	상업운전 중	53MW
	군위 풍백 ✓	상업운전, PPA	75MW
	의성 황학산	공사 중	99MW
	포항 죽장	개발 중	68MW
해상 1,345MW	신안우이	공사 중	390MW
	인천굴업(1단계)	개발 중	255MW
	인천굴업(2단계)	개발 중	500MW
	울진 후포	개발 중	200MW



연료전지(0.4GW)

청주	상업운전 중	20MW
음성	상업운전 중	20MW
칠곡	상업운전 중	20MW
약목	상업운전 중	9MW
보은	상업운전 중	20MW
충주 ✓	상업운전 중	40MW
대소원	공사 중	40MW
파주	공사 중	31MW
HPS '24년 낙찰	공사 중	28MW
HPS 파이프라인	개발 중	170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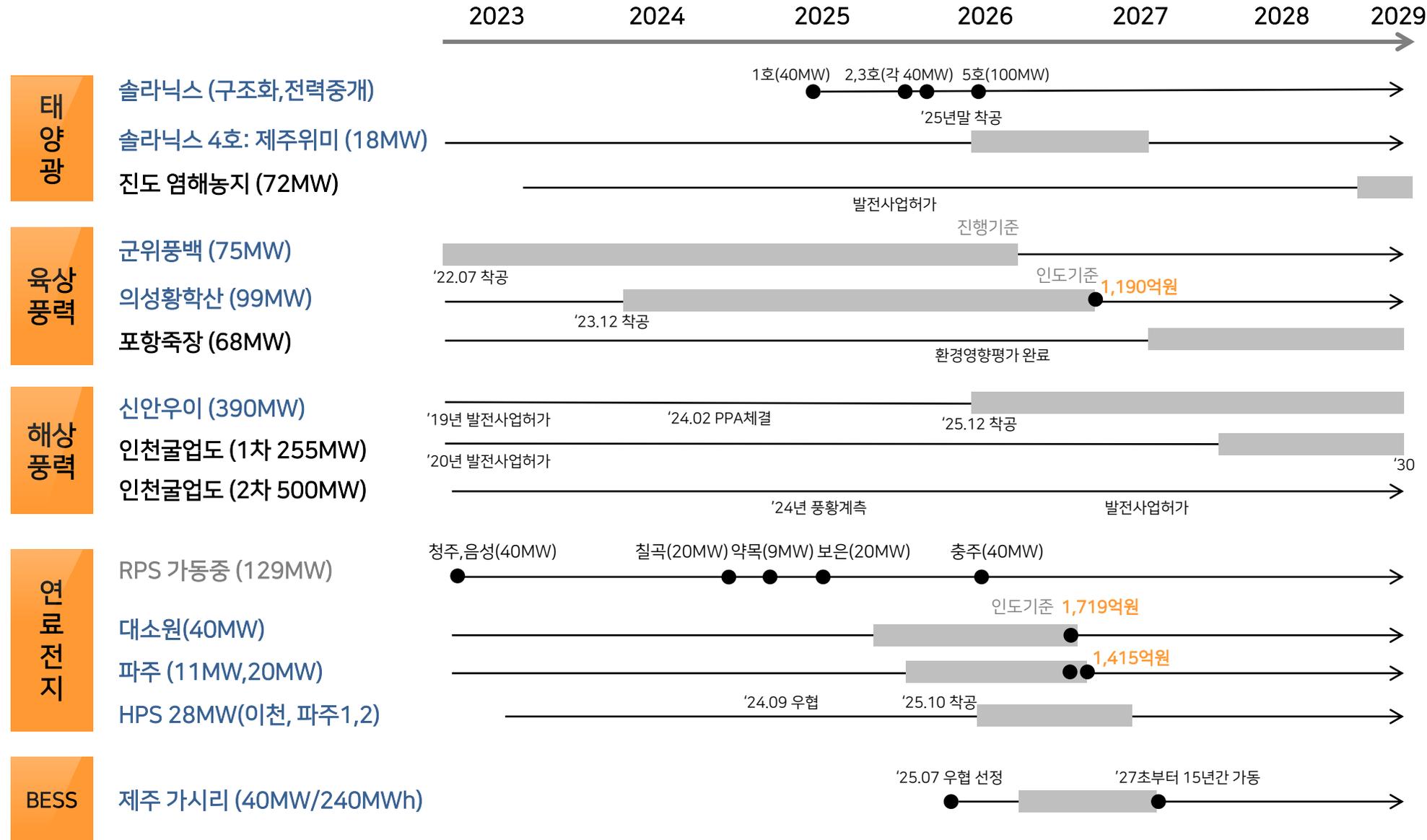
RPS 200MW



ESS(0.4GW)

국내	상업운전 중	200MW*
	BESS (제주) ✓	40MW
미국 FTM	상업운전 중	100MW
	공사 중	100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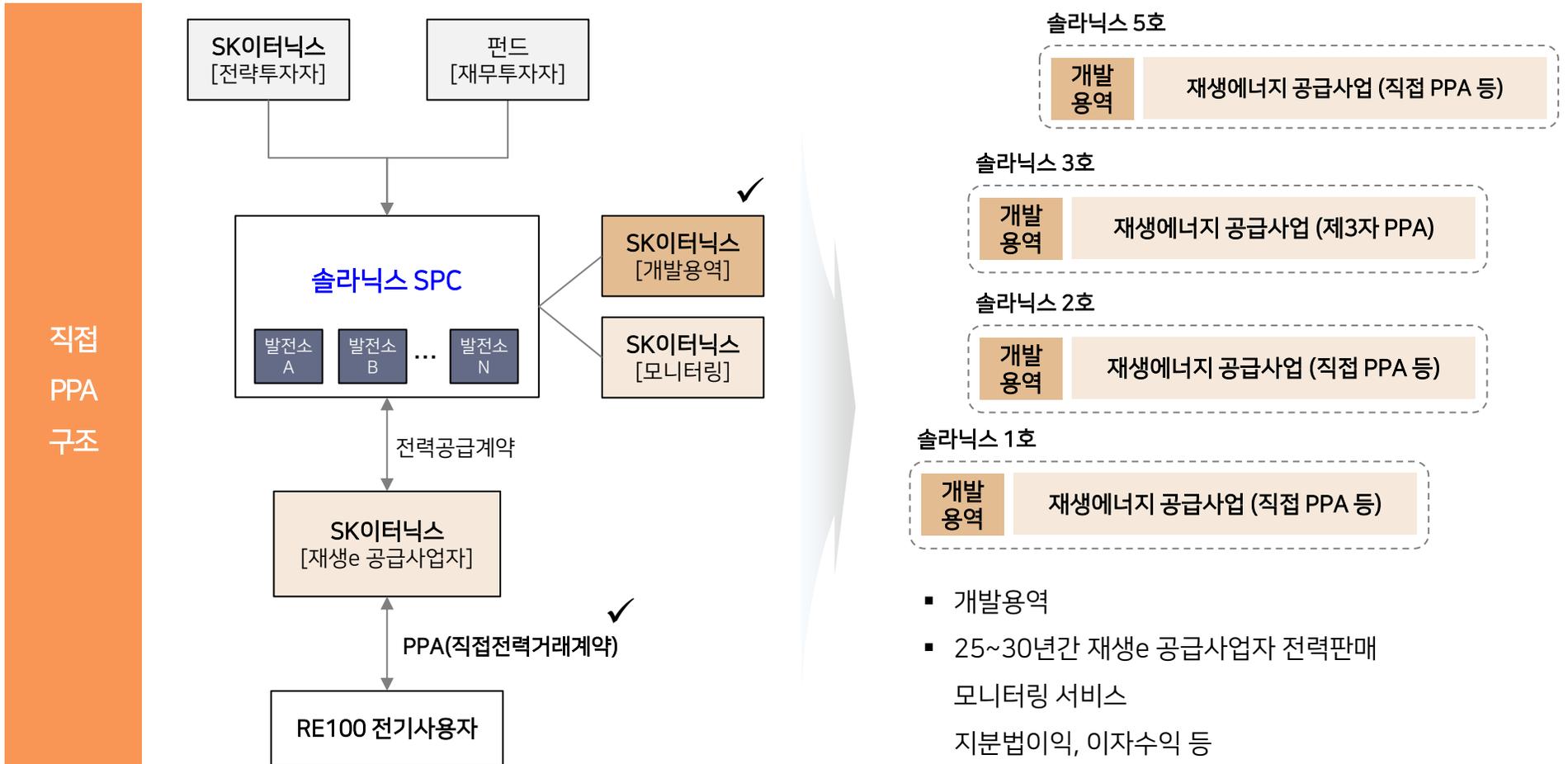
* 운영용량 795MWh





사계절 태양광

태양광 발전자원 구조화를 통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수익 극대화 (개발용역/전력판매 등)



발전자원 PPA 기준, 업계 Top-tier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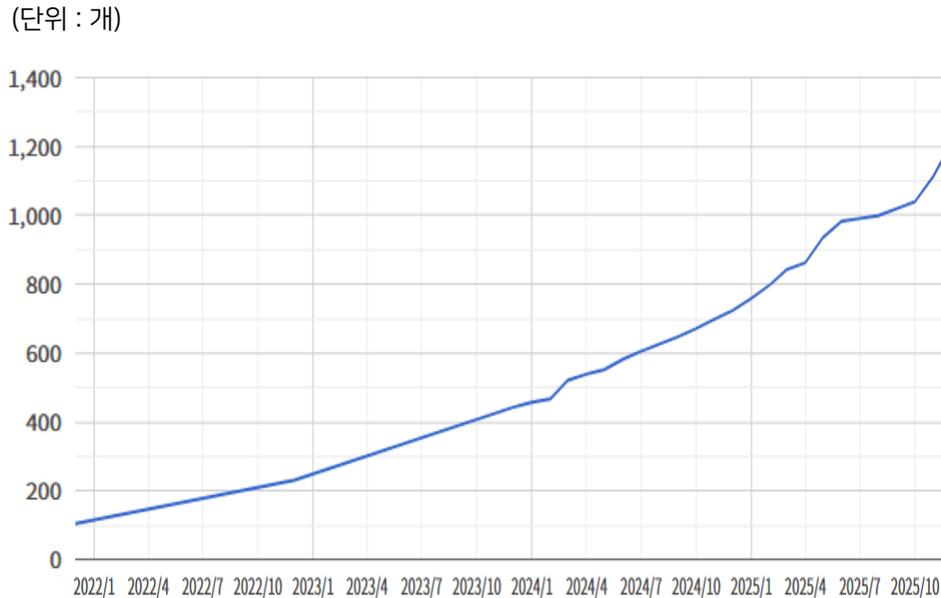
		규 모	내 용	구조화에 따른 개발용역	개발용역 인식시기	PPA 전력판매 조건
태양광 (솔라닉스)	1호	40MW	직접PPA	102억원	4Q24	30년간 전력공급 최소 보장 1,945억원 ('26.1월~)
	2호	40MW	직접PPA	112억원	2Q25	25년간 전력공급 최소 보장 2,031억원 ('28.6월~)
	3호	40MW	제3자PPA	112억원	2Q25, 3Q25	25년간 전력공급 모니터링서비스 ('26.1H~)
	5호	100MW	직접PPA	177억원 (100MW 중 63MW) (잔여 37MW)	4Q25 2026 예정	25년간 전력공급 최소 보장 5,023억원 ('26.1H~)
풍력	군위	75MW	직접PPA	-	-	25년간 전력공급 최소 보장 4,068억원 ('26.2월~)
		295MW				

* 솔라닉스 4호는 제주도 사업으로 '26년 구조화 예정

RE100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태양광 발전 보급 또한 증가하고 있음

RE100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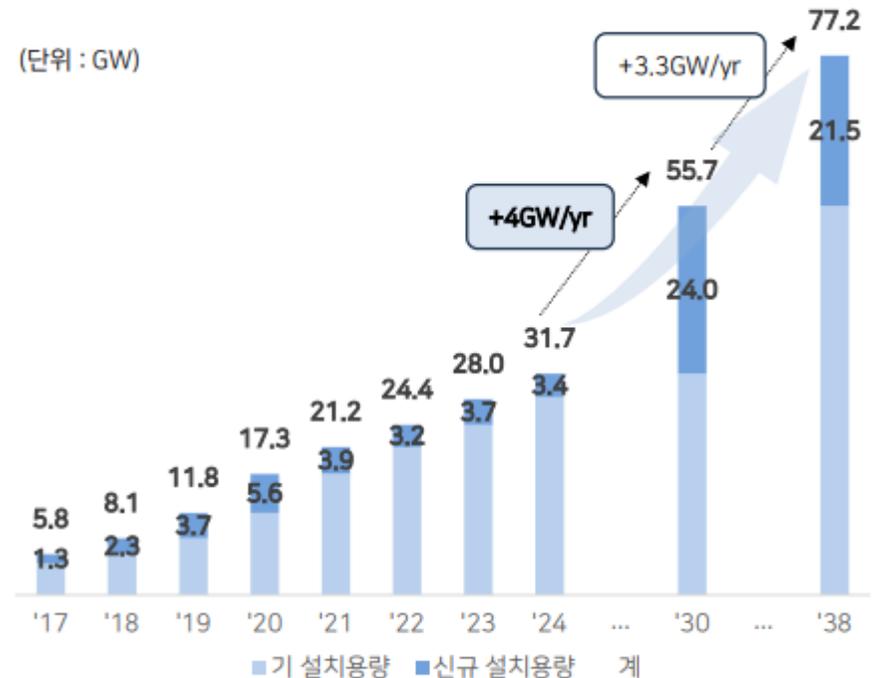
- '26년 1월 기준, K-RE100 가입 기업수는 1,210개,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7,395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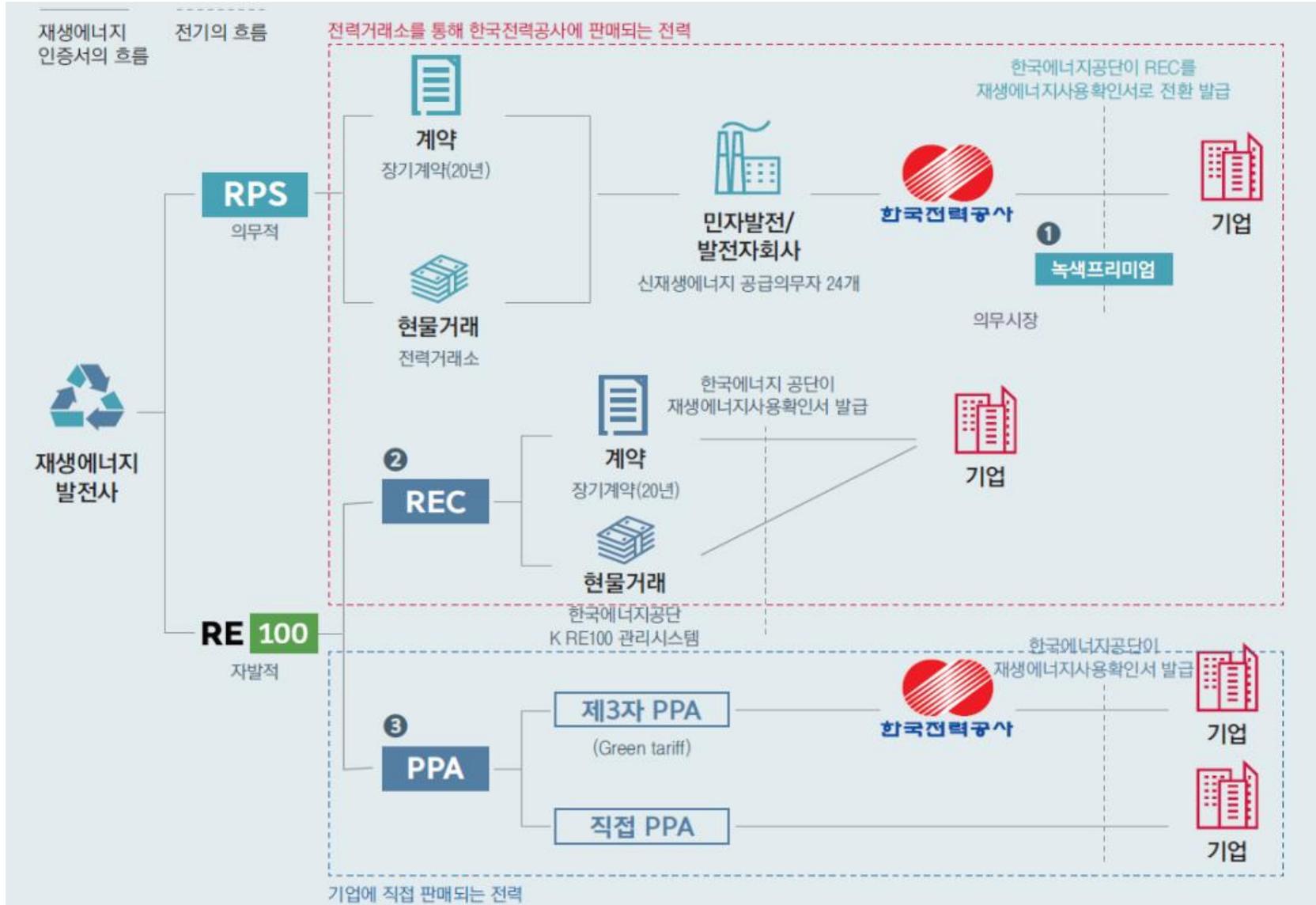


* 한국에너지융합협회 RE100 정보플랫폼

태양광 보급추이 및 전망

- (11차 전기본) '30년까지 매년 4GW 신규 공급 전망
- 영농형.수상.산단 등 적극 발굴, 이격거리 완화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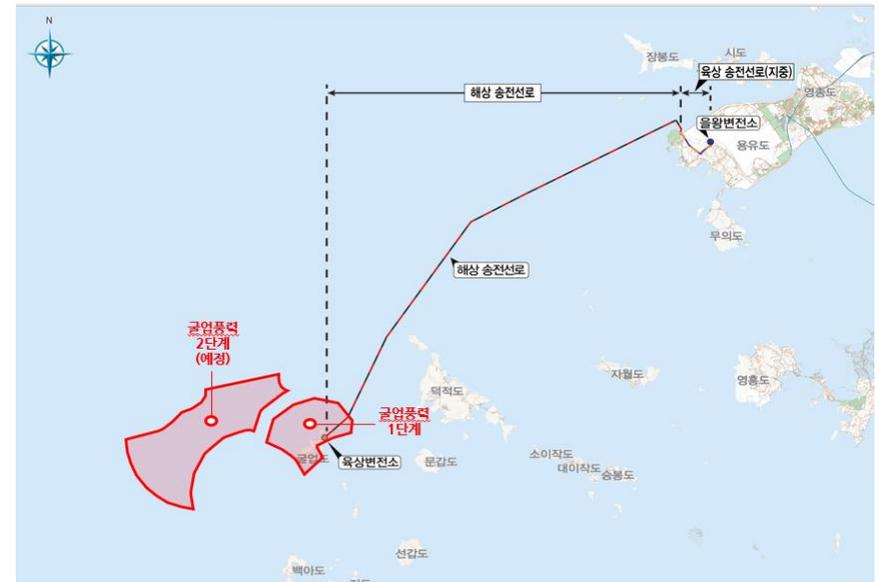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기업의 RE100 이행현황과 기술 기준



신안우이 해상풍력	규모	390MW (Vestas 15MW x 26기)
	사업자	SK이터닉스(개발), 한화오션, 중부발전, 현대건설, 미래에너지펀드(FI)
	추진경과 및 계획	'19.07 발전사업허가 완료 '21.11 송전선로 이용계약 체결 '23.08 환경영향평가 완료 '24.02 PPA 계약 체결 (남동발전) '25.12 EPC 체결, 착공 '29.01 상업운전 예정

굴업도 해상풍력	규모	755MW (1차 255MW, 2차 500MW)
	사업자	SK이터닉스, 대우건설, C&I레저산업
	추진경과 및 계획	'20.09 발전사업허가 완료 '21.05 송전선로 이용계약 체결 '25.09 환경영향평가 완료 '26년 경쟁입찰 예정 '27년 착공 예정



-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향후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 단축 기대 (사업준비기간 기존 약 10년 → 6.5년 수준)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가동 중 (2025년 9월~), 미래에너지펀드 (2030년까지 9조원 출자) 등 금융지원 강화

		(기존)해상풍력 경쟁입찰	(신규)계획입지 입찰제도
'25		군 작전성 검토	입지정보망 고도화
'26	↓ 해상풍력법 시행	계약기간 연장(20→25년) 추진	위원회 구성, 예비지구 지정
'27			민관협의회 구성·협의
'28			발전지구 지정
'29			계획입지 입찰 신설·운영
'30			투트랙 입찰 병행
'31			
'32			
'33			계획입지 입찰만 진행
'34			
'35			

* 기후에너지환경부 '25년 12월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3개년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 연 1~2회 실시되며, 20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689MW, 4개소)만 선정, '26년 상반기 입찰공고 예상

구분	'24.下(1회)*	'25(1~2회)	'26.上(1회)	합계(3~4회)
(일반) 고정식	1~1.5GW	2~2.5GW	1~1.5GW	4.5~5GW
(별도) 부유식	0.5~1GW	0.5~1GW	1~1.5GW	2.5~3GW
(별도) 공공주도형	-	'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합계	1.5~2GW	3~3.5GW	2~3GW	7~8GW

구분	현행(1단계)			개선(2단계)		1차	2차
	입찰가격	60	60	입찰가격	50 (△10)		
비가격 지표	주민수용성	8	40	주민수용성	4 (△4)	50	50
	산업경제효과	16		산업경제효과 (안보·공공 포함)	26 (+10)		
	<신설>			거점·유지보수	8 (+8)		
	국내사업실적	4		<삭제>	0 (△4)		
	사업진행도	4		사업진행도	4		
	계통수용성	8		계통수용성	8		

* 평가지표 재검토 후, 변별력이 낮은 지표는 추가 조정(삭제 또는 축소) 가능



- 기존 RPS제도내 REC 거래 가능한 PJT 누적 200MW 확보: 71MW (대소원 40MW, 파주 31MW) 공사 중, '26년 인도 예정
- '24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HPS): 28MW (이천,파주1,2) 개발용역 및 공사 중, '26년 입찰시장(HPS)은 상반기내 공고 예상



[청주에코파크 (20MW)]
('21년 10월 상업운전)
REC 구매 : 동서발전



[음성에코파크 (20MW)]
('22년 11월 상업운전)
REC 구매 : 서부발전



[칠곡에코파크 (20MW)]
('24년 8월 상업운전)
REC 구매 : GS파워



[약목에코파크 (9MW)]
('24년 9월 상업운전)
REC 구매 : GS파워



[보은연료전지 (20MW)]
('24년 12월 상업운전)
REC 구매 : 동서발전



[충주에코파크 (40MW)]
('25년 12월 상업운전)
REC 구매 : 고성그린파워



[대소원에코파크 (40MW)]
('24년 9월 착공)
REC 구매 : 고성그린파워



[파주에코그린 (31MW)]
('25년 8월 착공)
REC 구매 : 울산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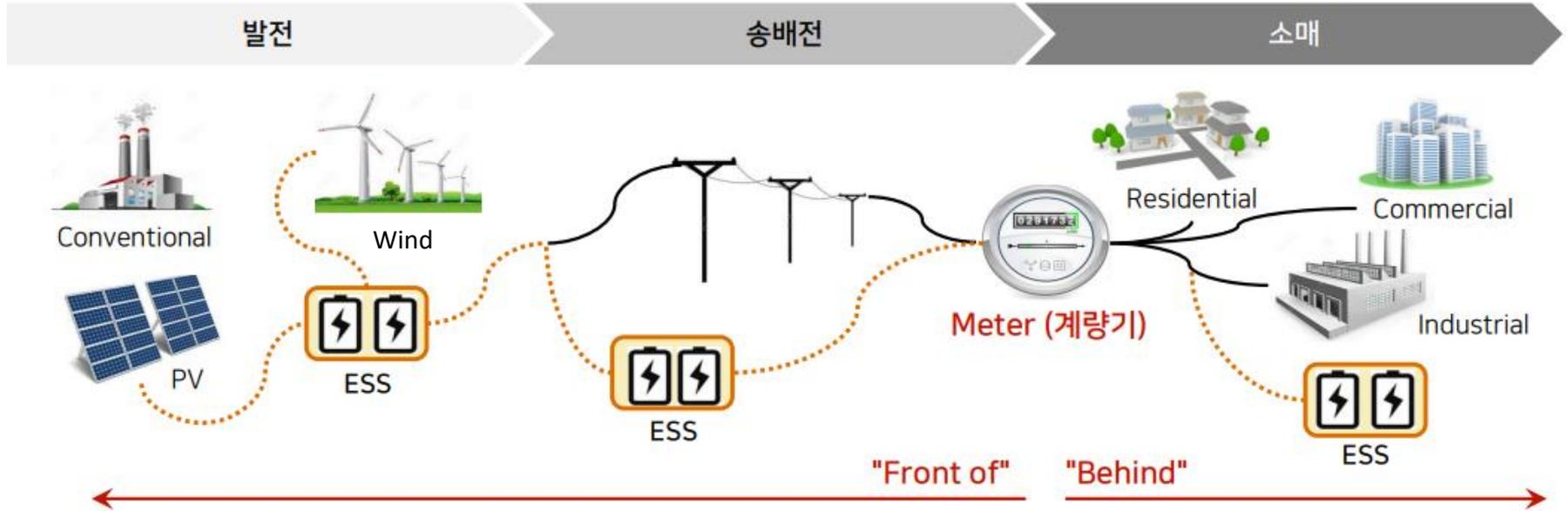
[이천에코파크 (9MW)]
('25년 10월 착공)
'24년 HPS 낙찰 사업



[파주에코파크1,2 (19MW)]
('25년 10월 착공)
'24년 HPS 낙찰 사업



국내 No.1 피크저감용 ESS 운영 사업자로서, 국내 및 미국 FTM ESS 사업 진출



재생e 연계용

- ✓ 재생e 발전의 출력 변동성 완화

계통연계용 ESS

- ✓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주파수/전압 안정을 통한 전력계통 전체의 안정화

배전용 ESS

- ✓ 지역 배전선로 과부하 및 전압 안정화

피크저감용

- ✓ Peak Cut/Load Shift(Arbitrage)를 통한 수용가 전력요금 절감

추진 배경

- 국내 중앙계약시장(계통연계용 ESS) 본격 성장
 - 미래 전력 수급 예측과 재생e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BESS 확충 필요
 - . '29년까지 2.2GW 규모
- 산업/경제활성화 측면에서 ESS 산업 경쟁력 확보
 - .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술별 믹스의 다양성 고려
 - . 안전성 강화, 국내 생산 비중 등 중요

- (11차 전기분) '26~'29년 2.2GW, '38년까지 총 23GW 보급 목표



입찰 결과

- 제1차 540MW 입찰물량 중 40MW 우협 선정, 착공 준비
 - 제주 가시리 40MW (배터리용량 240MWh)
 - 준공기한: '26년 12월
 - 계약기간 : 상업운전 후 15년 ('27년 ~ '41년)
 - 당사 R&R: 사업 기획과 주관(개발용역), O&M 등
- 제2차 540MW 입찰, 2월 中 우협 발표 예상



주요 사항

미국 ESS 사업 관련 해외 JV 설립 의사결정 ('23.12.07)

- 투자대상: GridFlex Inc.
- 투자한도: 174억원 (US\$ 13,656,000)
- 지분구조: SK이터닉스 20% : SK가스 80%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Apex와 JV 체결

- GridFlex 60% : Apex 40% 투자하여 JV인 'SA Grid Solutions' 설립
- 이터닉스 입장에서의 지분율 12% 수준

추진 일정

미 텍사스 지역에 200MW ESS 설비 운영 목표

- 1호 Great Kiskadee (100MW/200MWh) '25년 2월부터 상업운전 중
- 2호 PJT 출자 진행하여 '26년말 상업운전 예정



미국내 사업 확장 및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향후 개화될 국내 ESS 시장 선도지위 확보

[고수익 확보 가능한 입지 선정]
 풍부한 전력수요 /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 : 텍사스 ERCOT

[데이터분석 기반 최적 Trading 전략]
 Trading 경험 통해 축적된 노하우

End of Document